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월 15일 (제88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용서하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 예수께 묻기를 ‘이 여인을 어찌 하오리까?’ 라고 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도망치듯 사라졌다(요8). 참 멋진 장면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 과거를 거울삼아 죄 짓지 말고 멋지게 다시 시작하라!” 진정한 아름다운 장면이다.

나는 이 아름답고 멋진 장면을 연출하신 그 분이 좋아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사랑의 노예를 자처하며 왔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분처럼 살려한다.

세상에 제일 값진 것은 사랑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다. 이해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사람을 살려 다시 뛰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울과 베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시니 그들이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뛰었듯이. 또한 이해한 것만큼 용서할 수 있기에 이해와 용서는 인생의 치료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100% 이해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100% 용서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해졌듯이.

이해와 용서는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배려라 불리는 특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이다. 군의관은 전쟁 중에 적군과 아군을 무론하고 목숨을 살리는데 주력한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에 그렇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이해의 폭을 넓혀 용서 비는 자는 용서하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멈춘 자를 다시 뛰게 하고, 포기하는 자살이라 가르치며 천국을 침노하게 하는 자가 되자. 영·혼·육의 병든 자를 고쳐주며 희망의 주사를 모든 자에게 놔주자.

2017년, 우리 멋지게 다시 시작하자!

기대가 없으면 의욕도 없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부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목사님이 30년 넘게 목회하시며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비롯되었던 흥분이 지금도 한결같이 가라앉지 않는 비결이 숨겨있는 말씀이 아닐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기대가 마음 속에 늘 숨 쉬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가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한 메시지는 늘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이크인 목사님의 성대와 입술을 통해 확장 되어 우리의 가슴을 때리기 때문이다. 새해의 시작은 우리로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꿈만 꾸는 자는 꿈을 이룰 수 없다. 꿈을 꾸었으면 지극히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씀 역시 기억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삶은 의욕으로 가득하다. 목사님의 삶이 늘 지지치 않는 의욕과 열정으로 점철될 수 있는 것 역시 여기서 비

을 하는 사람이라 하지 않던가. 고로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예배당의 마당만 밟는 종교인들로서는 결코 꿈꿀 수 없는 경지이다. 그들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모든 예배의 형식을 좇을지라도 믿음, 곧 하나님의 향한 기대,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



"우리는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 기도성회를 계속 열 것이다!"
(8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영적 교제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늘 감사를 낳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18번 설교가 무엇인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네 꿈에 분수라는 잣대를 대는 순간 그 꿈은 무너지고 만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라지만, 나는 단호히 말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봐라. 아이가 오를 수 없는 곳을 쳐다보며 자꾸 올라가려 갸깁대면 아버지가 번쩍 들어 올려줄 뿐 아니라 행여 떨어질세라 지켜보신다.”

“한계는 스스로 긋는 것이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단지 불가능이란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강력

릇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

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제 안 되었어도 오늘, 아니 내일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8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인도하시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이 땅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도성회를 계속 열 것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 내가 하다 안 되면 내 자식이 할 것이고, 내 자식 때도 안 되면 내 손자가, 그 손자의 손자가 그렇게 계속해서 공평이질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만큼 집요한 도전의식!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경천동지할 일이 생겨도 묵묵히 자기 일

하고 그저 타성에 젖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의욕도 없다.

노아가 100년이 넘도록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뚝뚝거리며 방주를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였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분의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 함께 했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새해,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시작하자.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자. 우리 삶을 의욕과 열정으로 불태울 수 있는 비결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2:1~14)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면 죄악과 이혼하라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임신양명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요. 가슴이 마구 뛰지 않습니까? 선생님께 인정만 받아도 대단하고, 부모에게 인정받아도 뿌듯하고, 목사님에게 인정받아도 솔직히 목에 힘이 조금 들어가는데, 유일하신 신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어떨겠습니까? 애기 끝난 겁니다. 제가 세상이 뭐라 하든 이렇게 당당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뭘니까? 인정(認定)이란 한문을 보면 말씀 언(言)변에 참을 인(忍)으로 이루어진 알 인(認)자와 집 면(欠)변에 바를 정(正)이 합쳐 정할 정(定)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뜻을 헤아려보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과 고통이 와도 참고 바르게 행하여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인정을 받은 자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더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옳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어찌 사회에서, 어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흠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벧전 3:1)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려면 많이 참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남편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그런데 이 '인정받는다'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이왕 한문풀이를 했으니 이것도 해보자면 사람 인(人)변에 말씀 언(言)이 합쳐져 신(信)이고, 뢰(賴)는 뭍을 속(束)변에 질 부(負)가 합쳐서 된 것입니다. 이 뜻을 보자면 '내 말을 사람의 등에 실어 보낼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 신뢰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겨도 걱정되지 않는 사람, 의심되지 않는 사람, 안심되는 사람이 인정받는 자요, 신뢰받는 자인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유혹되어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신뢰받은 자의 삶은 어떨을까요? 아브라함을 실례로 볼까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의 갈등도 없이 산에 올라 아들에게 칼을 대려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칼을 거두게 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너를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왕이 되리라"(창22:17).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왕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왕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22:17~18)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줄 아시겠지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악과 이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악과 이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별은 다시 만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예 죄와는 갈라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해서야 어찌 인정을 받습니까? 당신이 상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의 소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24).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기거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5:14)고 하였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8:11)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시119:162~163).

여러분, 죄의 연(緣)은 짙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악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끊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긴 실타래 같아서 순리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과감히 무자

트듯 잘라내야 합니다. 삼손과 들릴라는 악연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연을 잘라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실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눈이 빠진 채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연이 그랬고, 여호사밧도 아합과 연을 맺음으로 겨우 죽음만을 면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고후6:14~16).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가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중 방백들과 두목들을 포함하여 어떤 자들이 이방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3장에 이방여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느13:26~27). 솔로몬이 이방여인들을 첩으로 맞아 그로 인해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을 잘못 맺으면 이런 신세가 됩니다.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과의 연을 끊지 못해 애달파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삼상16:1)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연을 잘라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노래가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시1:1).

지금 대한민국의 사태가 잘못된 연으로 인해 시작되어 견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당신도 잘못된 연인 줄 알면서 인정 때문에, 동정 때문에 그냥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그 연 때문에 죄사슬에 얽힐 수 있습니다. 잘라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허다한 하나님의 증인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연을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되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져도 살아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 지나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2017년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매사 전력질주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전심 전력하면 진보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발전하고 성장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누군가 그랬다.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즉 동기부여만 되면 평생 놀고 먹던 사람도 갑자기 딴 사람이 돼서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매년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여 자신을 전력 질주하는 쪽으로 몰아넣어 성장과 성취를 맞보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초능력적으로 일하는 자신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여유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여유 있게 살아가며 이루는 목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진보성장해서 결국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힘에 부치는 목표를 설정한다. 힘에 겨운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목표에 맞는 생각과 몸의 세포 조직들이 재결합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늘 경험한다. 1년이 지나서 목표

표를 이루고, 돌아보면 참 자신이 대견하다. ‘이걸 어떻게 했지? 다시 하라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참 많다.

2017년 새해가 밝아 벌써 며칠이 지났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고 새해 표어를 정해주셨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못 올라가는 나무는 쳐다보고, 남들이 비웃을만한 목표도 세워보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체해해 보자.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랴? 세상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자들이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력으로 질주해보자. 반드시 진보와 발전과 성취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리고 남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멘토가 되어보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후 4:15~16).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24~25).

이시대 목사

:: 신앙논객 ::

하나님과 사랑의 언어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이며 결혼생활 세미나 인도자로 40여년 이상 부부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해오고 있는 게리 채프먼 박사의 스테디셀러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많은 부부들의 실례를 들어가며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바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육체적인 접촉, 봉사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당신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당신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길 원하십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육체적인 접촉은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각 지체들과 함께 부대끼며 울고 웃고,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부르심에 헌신하여 섬기는 것이 곧 그분을 위한 봉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셨다는 것을. 그 분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시2:7).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마28:20).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엡2:8).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찢리고 상하며 고통 당하셨습니다(사53:5).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희생과 헌신,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요일3:16).

우리에게 온갖 사랑의 언어로 당신의 사랑을 먼저 표현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하면 우리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됩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하나님을 바라보라!

1967년 7월 20일 주일 오후 3시 18분, 지구를 떠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은 흙먼지 덮인 달 표면에 내려앉았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특별히 마련한 캡슐을 달에 내려놓았다. 이 캡슐에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인류의 신앙고백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아는가?

그 캡슐에는 시편 8편의 말씀을 기록한 종이가 들어있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 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시8:1~9).

2017년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 투성이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을 달구어본다. 지나버린 할 수 없는 일에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소망을 품어보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려움과 힘든 일들로 속내가 답답하지만 다시 한 번 하늘을 우러러 보시길 바란다. 저 광활한 우주 속의 이 지구, 그 속에서도 작고도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고 계시며 사랑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강을 건넌 뗏목은 끊어버리고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감사하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

암은 무서운 병으로 의사들은 암을 ‘미친 세포 병’이라고 부른다.

우리 몸에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마음대로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체계의 지시를 받고 몸의 체계에 순종하면서 세포가 자란다. 그런데 미친 세포는 자기 마음대로 분열하고 자라는 세포다.

우리 몸속에 하루에 몇 백 개의 미친 세포가 생긴다고 한다. 우리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미친 세포의 기를 꺾어놓아 죽게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미친 세포가 증식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결국 순종하는 세포는 건강한 세포이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지만, 불순종하는 세포는 미친 세포로서 우리 몸을 죽인다. 이 같은 결과가 어디 암 세포 뿐이라. 우리의 삶에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천지차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 이것은 2017년 우리 교단의 슬로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73:2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약4:8)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다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다. 탕자의 저주는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깨닫고 돌아와 아버지를 가까이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요,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웠기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철저하게 비웠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8).

복종에는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순종하고 복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마침내 복을 받는다. 더욱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해가 되자!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2017년, 각 부 성가대 지휘자에게 새해의 각오와 다짐을 들어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레이트 성가대는 연합성가대입니다. 각 부 성가대원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입니다. 사실 수요일에 전에 잠깐 연습을 하는 관계로 연습시간이 부족합니다. 직장에서 곧바로 퇴근하는 대원, 집에서 가족들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달려오는 대원들인지라 항상 허겁지겁 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비가 오나 눈이 와도 항상 참석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런 대원들을 어찌 하나님이 어여뵈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의 찬양은 단에 서면 항상 아름다운 화음으로 울려 퍼집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기에 하늘보좌에 울려 퍼지는 것을 지휘를 하면서 느낍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화음이 조금 안 맞고, 박자가 조금 어긋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원들의 중심을 보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레이트 콰이어는 잘 가고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문자와 전화로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거나 결

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여쭙보면 귀찮다 안하시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늘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겁니다. 제게 주신 능력 안에서 차선이 아닌 최선을, 대충이 아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 하고 지난해를 되돌아보니 아직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뜻대로 행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제 생각이 앞설 때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제 성격 그대로를 드러낸 적이 많았습니다. 숨이 턱에 달만큼의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2017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 흠향하시는 찬양을 하는 그레이트 콰이어가 되기 위해 더욱 달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큰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그레이트 콰이어 최현준

멈추지 않는 도전



2007년 창단된 빅토리성가대는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이 없었더라면 겉지 못했을 겁니다. 오래전 신년사에서 저는 성가대 배가 부흥의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꿈이 있는 자는 절대 지치지 않는다’는 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마음을 늘 새기며 기도했습니다. 이 노력의 결실로 양적인 배가 부흥을 이루었고, 이제 아름다운 도약을 준비하려 합니다. 바로 10년 전, 다시 그때처럼 첫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꿈꾸려 합니다. 이제 ‘신뢰를 쌓고 비전을 공유하는 경쟁력 있는 성가대’가 되려합니다. 첫째,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신뢰가 기본이라고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피아노를 구성하는 88개의 건반처럼 어느 누구하나 중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내

가 속해있는 자리에서 이탈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없기에 신뢰로서 단단한 결속력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목사님의 목표와 비전이 곧 우리 성가대의 목표와 비전입니다. 큰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항해를 하려면 선장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이라는 한 배에 타있는 한사람, 한사람으로 목사님이 제시하시는 비전을 믿고 따라서 올바른 길로 항해하며 나아가는데 작지만 큰 보탬이 되길 원합니다. 셋째, 이른 시간에 찬양한다는 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일예배의 첫 문을 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동과 영감 있는 은혜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 성가대의 원동력과 경쟁력으로 삼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시51:12)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찾고, 되돌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빅토리성가대 오연미

초심과 독심



어느덧 지휘를 시작하니 햇수로만 7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온성가대의 지휘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속에 반석으로 삼은 것은 ‘이 성가대는 나의 소유물이나 산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 주님의 찬양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저의 개인적인 음악성이 반영되었지만 어떻게든 더 좋은 소리로, 더 아름다운 화음으로, 더욱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은 ‘포용’이었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실력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성가대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노력과 정성은 각자에게 맡겨드렸기에 성가대라는 곳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음정, 박자, 이런 것들이 틀린다 하여도 고치면 그만인 것이니 두려움 없이 찬양을 할 수 있게끔 다독여 주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만은 틀리지 않게, 뜨겁고 진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먼저’였습니다. 제가 먼저 노력하고, 제가 먼저 최선을 다하며, 제가 먼저 마음을 다하여 이끌어 나갈 때에 성가대원 분들도 공감하여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가대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최선을 ‘먼저’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성가대원분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길 원하였습니다. 2017년에 제가 시온성가대에 붙잡고 갈 것은 ‘초심’과 ‘독심’입니다. ‘초심’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처음 먹은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 지휘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찬양대’라는 생각과 ‘포용’과 ‘먼저’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독심’입니다. ‘독심’의 뜻은 ‘군세에 버티거나 감당하여 내는 힘, 좀 미련하게 볼 뚝 내는 힘’입니다. 올 한 해 미련해보일 정도로 힘을 다해 시온성가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에도 끝까지 군세에 버티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온 세상을 복음의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시온성가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온성가대 김상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가대



2011년 3월 6일 주일,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로 임명받고 벌써 6년! 부족한 저를 지휘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7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해가 되자’는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더욱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가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2가지 목표를 정하였는데, 먼저는 ‘질적으로 향상된 성가대가 되자’입니다. 성가대원들의 음악적 소양과 찬양할 때의 발성, 그리고 풍부한 감정 표현들의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물론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왔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성악적인 발성과 찬양의 주제에 맞는 감정표현들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란 생각만 있을 뿐이다’, ‘도전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 늘 이렇게 우리는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 성가대원의 평균연령은 높지만 정신력만은 젊은이들 못지않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준비한다면 장차 1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성가대는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가대가 되어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는 성가대가 되자!’입니다.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많은 신입대원들이 들어오는 반면, 적지 않은 성가대원들이 성가대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서로 간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주었다면 떠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원들이 들어왔을 때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면 더 많은 대원들과 함께 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과 찬양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다면 성가대석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머지 않아 일어날 것입니다. 질적으로 향상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사랑이 넘쳐 부흥하는 성가대, 이런 임마누엘 성가대를 기대해주시고, 힘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임마누엘성가대 이민호